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오늘 온라인 개최

컨텐츠의 차별화

비대면 소비에 발 맞춰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북비오용한진홍원(이하 바이오진홍원)이 주관하는 국제식품박람회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지속되는 코로나 확산 및 비대면 소비에 맞춰 오늘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회 연속 국제전시인증을 획득한 전라북도 유일의 정부공인 국제인증전시회로, 그간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 일원에서 매년 기관을 개최되었으나, 코로나9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행사인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로 진행한다.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2020년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도내 약 23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체국쇼핑, 11번가, 위메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기획전 판촉을 추진 35억원의 매출 성과를 일궈냈으며, 국내 약 600여 품목과 세계 발효식품판 운영을 통해 국제전시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김강철을 맞아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전북도청 주차장 일원에서 김강철 재료 등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인터넷 쇼핑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2회 우체국쇼핑 온라인 기획전 연도대전에서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하는 평가도 거두었다.

▲코로나를 넘어 글로벌 리더 식품전시회를 향해
바이오진홍원은 올해에도 김강철



미래식품관 신설

모바일 접근성 강화

가치 소비형으로 준비

확산 지속 및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행사를 온라인으로 준비했다. 지난 7월 14일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온라인 입점 품평회를 시작으로 쿠팡을 비롯 11번가, 우체국, 위메프, 거시기집터, 군번몰, 네이버 등 국내 유수의 쇼핑몰 플랫폼 9개사 MD와 도내 약 45여개 기업의 만남을 주선해 도내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입점을 추진했으며, 전라북도 제품 판촉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진홍원과 쿠팡 간 업무 협약 체결에 이어 우체국쇼핑, 11번가 등과도 온라인 기획 판매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내 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전시관에 수출상품을 직접 등록한 수출 식품관을 개설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바이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실질적 수출계약을 위한 B2B 화상 상담회도 함께 추진 중이다.

그 밖에 미래식품관을 신설 HMR, 밀키트, 대체식품 등 변화하는 최신 소비 동향을 반영 풍성한 내용으로 온라인 참관객을 맞이한다.

특히 PC와 더불어 모바일 반응형 홈페이지를 제작해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홍보 강화를 위해 개설한 키카오톡 채널에 친구추가를 한 참관객에게는 기간제 이모티콘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등 MZ세대도 쉽게 참여하고 저렴한 가격에 전라북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치 소비형 엑스포로 준비했다.

전북비오용한진홍원 김동수 원장은 "코로나시대 e-엑스포 추진은 국내 온라인 판로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국제인증전시회에 걸맞는 다양한 행사를 위해 노력동안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전라북도 제품의 우수성을 알립과 동시에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글로벌 리더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제19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8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로 개최되며, 8월 2일에 우체국쇼핑과 11번가 등에서 다양한 전라북도 우수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공식 홈페이지 (www.iffe.or.kr)를 방문하면 다양한 도내 식품의 온라인 참관이 가능하며, 이벤트 등에도 참여할 수 있어 e-엑스포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농업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린 지난달 30일 전주시 국립한국농수산대학 학생회관에서 하태웅 농촌진흥청장과 수상자들이 험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업분야 공공데이터를 창업 아이템으로

농진청, 창업 경진대회 시상… 제품·서비스 개발 5점·창업 아이디어 4점 등 총 9점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하태웅)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함께 진행한 '2021년 농업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심사결과, 총 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생각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증진하고 정보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작은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5점, 창업 아이디어 기획 4점 등 9개 작품이다.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농촌진흥청의 대표 공공데이터인 흙토론파와 연계해 현장에서 직접 토양 성분을 측정·분석하고 적시·적량의 비료를 추천하는 '토양 현장 진단용 분석시스템'을 제안한 테크네이션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업체농장 예약 및 비대면 교육 운영체계를 제안한 플랜이츠가 수상했으며, 우수상(데이터 포털), 장려상(마스팜, 메디프로소)도 각각 선정됐다.

창업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생산지와 소비자 거리별 차등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를 제안한 팜마일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환경정화용 곤충인 동애동물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우수상을 수상했고, 장려상은 희귀 빈데식물 대량생산 솔루션, 가상공간 스마트팜 임대 및 생산품 공급 서비스에게 돌아갔다.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종합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 5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26건(서비스 개발 13건, 창업 아이디어 13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 조용빈 국장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농업분야의 혁신성장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활용기지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꾸준히 개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나만의 시드머니' 위한 금융상품은?

신협이 제시하는 하반기 성공적인 재테크 전략

가장 기본적인 실천 방법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

신협 '온뱅크' 이용 높아 혜택 보기 위해 몰려

'유니온 정기예탁' 비과세 혜택 커 높은 인기



금 상품은 이율을 기준으로 선택하는데, 이 때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면 추가 금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0.1% 금리도 행간다… 11만 가입자 보유한 '모바일 앱, 온뱅크' 통한 우대이율

신협의 경우 가입자 115만 명을 돌파한 자사의 모바일 앱 '온뱅크' 계좌 개설 건수 상위 10개 중 6개가 모바일 전용 상품이다. 순서대로 ▲유니온정기예탁(1위) ▲e-파란직금(3위) ▲유니온정기적금(5위) ▲유니온자유적립적금(7위) ▲드리밍박스(9위) ▲레이디4U직금(10위)이다.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을 받으려는 암투자족들이 절세 및 이율 혜택을 위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협 유니온정기예탁, 비과세 혜택으로 신협 모바일 앱 '온뱅크' 1위 온뱅크 앱을 통해 가장 많이 개설된 금융상품은 유니온정기예탁'이다. 신협의 유니온 시리즈는 지역신

협 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비과세 혜택(이자 소득세 14% 면제, 농어촌 특별세 1.4% 부담)을 누릴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또한 기본 금리도 전국신협 평균 예금 금리를 따라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금여체 등 간단한 우대 조건 민족 시 최대 0.6%의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e-파란직금, 하루 단위로 정기예탁금(12개월) 절반 수준의 이자를 주는 페킹통장 '드리밍박스' 등의 인기가 높다.

여성 고객 특화 상품 '레이디4U' 적금도 모바일 우대 이율의 혜택이 더해진다. 신협 '레이디4U적금'은 만 20세~39세 여성 대상의 온뱅크 전용 상품으로, 여성 구매 빙도가 높은 3대 업종(화장품, 카페, 온라인 쇼핑몰)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 신협 예·적금 가입설정 및 공제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최대 1%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시 입금이 가능해 지출이 잦고 여유자금이 불규칙한 20~30 여성들도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다.

신협 관계자는 "수많은 재테크 정보가 있지만 예적금을 통해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 원금과 이자를 차곡 차곡 저축하여 확실한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재테크 틀을 실천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아동 맞춤형 '현명한 금융생활'

전주피티마신협 어린이 경제교육 진행

전주피티마신협(이사장 양준제)이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간 전주피티마신협 혁신지점 문화공간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경제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저학년)을 대상으로 27일에는 화폐의 발달과정과 우리나라화폐에 대한 경제교육을, 28일에는 초등학생(고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신용관리와 금융시각에 대한 경제교육을 진행해 청소년 시기에 습득한 절제된 금융관念과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주피티마신협(이사장 양준제)은 지역아동들과 1박 2일동안 경제 교실을 운영한 바 있으며 이동들이 경제 꿈나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는 비대면 경제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피티마신협 양준제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지식을 쌓아 향후 사회 진출과 밝은 미래를



전주피티마신협이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간 전주피티마신협 혁신지점 문화공간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경제 교육을 진행했다.

민들어 나가는 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금융교육 지원 광택을 조금이나마 해

소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경제교육으로 지난나이는 지역아동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산 농식품 유통 활성화 3기간 '맞손'

농식품유통공사·한농연·농어민신문, 농식품 소비촉진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준진)는 지난 3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이학구), 한국농어민신문(사장 김정호)과 국산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3기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국산 농식품의 판로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유통 체널 확보를 지원하고



한농연은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 유통망 및 상품소싱 지원과 농산물 유통단계

도공, 근로자 휴식공간으로 '토탈 안전차량' 활용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발사업단(단장 김홍배)은 전례 없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고속도로 유지보수현장 근로자의 복지 및 인권 향상을 위해 개발한 'TOTAL 안전차량'을 폭염 대비 근로자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TOTAL 안전차량은 일반 공사현장과

달리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 화장실 등 복지공간 설치가 어려운 실정인 고속도로 내에서 작업하는 유지보수현장 여건을 개선하고자 휴게실, 화장실 등 복지시설과 안전시설을 접목한 특수제작차량이다. 에어컨과 서큘레이터가 구비된 TOTAL 안전차량은 한변에 12명이 식사 및 휴식이 가능하며, 2대의 냉장고가 설치돼 있어 시원한 물과 식염을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방주시태만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추돌사고를 대비한 TOTAL 안전차량은 이동식교통신호기(LCS), 차량용 충격흡수장치(TMA), 도로전광표지(VMS), 대형 스피커 등으로 안전시설이 부착된 특수 안전차량으로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장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